

예비전력(豫備戰力)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양 승 봉* 최 순 원**
국방대학교 초당대학교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안보위협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로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에게 예비전력은 한국군에 대한 느낌과 가치, 통일인식, 군(軍)에 대한 긍정인식과 관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이 한국군에 대한 느낌과 가치, 통일인식, 군(軍)에 대한 긍정인식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2022년 국방대학교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의 2차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춘 후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은 한국군의 느낌·가치 중 신뢰와 청렴이 예비전력 중요성에 영향을 주었다. 청렴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군(軍)의 부정적인 보도가 많을수록 예비전력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통일인식 중 통일의 필요성과 국가이익이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예비전력을 군사력 유지를 위한 핵심전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군(軍)의 긍정 인식 중 지역사회 발전 기여, 평화유지 기여, 군(軍)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순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기타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제한사항,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예비전력, 일반국민, 한국군의 느낌과 가치, 군(軍)에 대한 인식, 통일인식

본 연구는 초당대학교의 2023학년도 교내연구과제 연구보조비 지원으로 이루어 짐.

* 주지자: 양승봉/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예비전력연구센터 연구원/충남 논산시 황산별로 1040
/Tel: 041-831-6483/E-mail: 7co-zzang@hanmail.net

** 교신저자: 최순원/초당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061-450-1558/E-mail: smalchoi@cdu.ac.kr

I. 서론

군사력은 크게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으로 구별되는데 상비전력은 평시의 전쟁 억제 및 전쟁 초기에 대응전력으로 운영되고 예비전력은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주전력으로 운용하게 된다(이원희, 2015). 그동안 예비전력은 증편·창설 소요를 충족시키는 상비전력의 보조수단 역할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관심 부족과 함께 국방정책, 국방예산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예비전력의 첫 시작은 1968년 4월 1일 창설된 향토예비군이다. 1968년 북한이 무장공비를 남파하여 주요 암살요인과 청와대 타격을 목표로 한 1·21사태를 계기로 창설되었으며(양승봉, 2021) 창설 이후 ‘일하면서 싸우자’라는 구호 아래 국가방위와 경제발전의 주축으로 오늘날까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예비전력은 전시 병력의 73%, 물자의 66%를(정진섭, 2023) 담당하고 있어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2022년 2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전 세계에 안보위기로 다가왔다. 전쟁의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관련 국가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현재의 흐름상 양측 모두에게 처절한 2~3여 년의 소모전을 거치지 않고는 협상 국면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협상 국면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영토문제와 같은 일차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태립, 2022).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예비전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전초 우크라이나는 국가 총동원령을 선포,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지난 9월 부분동원령 선포를 통해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전쟁이 소모전으로 접어든 이상 이번 전쟁은 예비전력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상비병력과 과학화된 첨단무기를 이용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이 최선이나 병력자원의 감소와 국가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요한 전력으로 대두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국방부는 2012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으며(국방부, 2022) 윤석열 정부는 국방혁신 4.0의 과제로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 중이다.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술영역에서 정예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강용구(2022)는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예비군 발전 방향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첨단 과학기술을 예비군훈련에 적용하여 변화된 훈련환경과 방법을 통해 성과 있는 예비군훈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정일성(2022)은 한국군 예비전력이 상비전력에 상응하는 실효 전력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범주의 예비전력 개념 도입과 정책·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성희·이상현(2022)은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해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으로 동원전력 능력 확충, 추가 전투력을 위한 부대 창설 능력 보유, 예비군자원 운용의 효율성 제고, 동원집행지원 역량 확보, 훈련 방법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윤지원(2021)은 상비군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정예 예비전력 운용을 위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 및 확대, 예비군훈련비 적정 수준 지급과 무기체계 현대화 등을 제시하였다. 박상중·윤진영(2021)은 병력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기반한 효율적 동원자원관리 체계 개발, 과학화 예비군훈련 확대 및 강화, 지역예비군 장비·물자의 현대화 등 전력 적응능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예산의 2%가 예비전력 예산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용·정민섭·박상혁(2021)은 최근 예비전력 운용과 관련하여 쟁점 사안을 분석하고 미래 트렌드 주요 변수(STEPPER)

를 고려한 안보 전략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병력 동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미래 적용 가능한 예비군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3년간 연구된 논문은 군사력 측면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발표된 논문은 정책 제언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느끼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는 드물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부족하다면 이는 예비전력에 대한 국방정책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이어져 예비전력 정예화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군(軍)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 국민은 일반 국민이면서 동시에 전시 예비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비군이다. “군(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일반 국민의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연구문제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방력 건설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진행한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국방대학교 조사 보고서 상에는 각각의 변인들에 대한 분석은 진행되었으나, 서로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규명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특히 그 영향관계를 발견하고 규명하면서 연구의 독창성과 학문적 기여를 하려고 의도하였다. 더불어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도록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신뢰성있고 타당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연구방법으로서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나타난 1,2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주성분분석의 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한 이후에 다시 최대 우도방법으로 요인 분석하여 측정도구를 검증하였다.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

석을 통해 측정변수의 특징을 파악하고 변수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으며 이후 재구성된 측정도구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후에 한국군에 대한 느낌·가치,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이익, 군(軍)에 대한 긍정인식이 예비전력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예비전력의 개념과 중요성

예비전력의 정의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군사용어 사전에는 “예비전력이란 상비전력에 대별되는 개념으로서, 국가잠재력을 전력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군사력을 말하며 전시에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전시·평시 지역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능력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합참, 2022).

정진섭(2018)은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의 동반전력이며 국가총력전 수행의 주전력으로 임무와 역할은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재해재난과 비군사적 위협 등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정성희·이상현(2022)은 예비전력은 한 국가의 총체전력의 일부인 동원전력이며 상비전력과 함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군사력의 핵심요소라 하였고 정일성(2022)은 예비전력은 상비전력을 제외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이뤄진 국가의 총체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동원을 통해 전쟁 수행 목적과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력의 모든 요소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박종길(2018)은 광의적 의미로는 유사시 국가가 동원을 통해 전력화되는 군사, 민생, 안전, 정부 기능 유지 용도의 모든 잠재력이며 협의적으로는 군사부문 용도로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예비전력의 구

성요소는 상비전력 이외의 인적·물적 자원과 제도·정책 등을 포함한 유·무형의 잠재전력이라 할 수 있으며 동원을 통해 형성되는 군사적 능력을 예비전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양승봉, 2021).

예비전력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전시 병력의 73%, 물자의 66%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 없이는 상비군 임무 수행이 제한되며 전쟁이 장기화될 때에 작전지속지원을 예비전력이 담당하기에 예비전력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예비전력은 중요하다. 현존하는 최대 안보위협인 북한을 비롯해 주변 강대국은 언제든지 우리의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방혁신은 상비전력을 감축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변국과의 분쟁 시 얼마나 이른 시간 안에 동원하느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초기 동원 응소율과 예비전력 정예화는 주변국 안보위협에 대응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셋째,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인해 대규모 상비전력과 첨단무기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상비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예비전력보다 큰 비용이 요구된다. 최소의 비용으로 상비전력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예비전력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전력은 국가안보, 경제적인 측면,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 등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력이다(이원희, 2015).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동원체계를 점검 및 확인을 하고 내실 있는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이 필요하다.

2. 군(軍)과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

군(軍)이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는 전쟁을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국가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전경국, 2021). 이 국방 서비스에 예비전력도 하위개념으로 포함된다. 인식(認識)은 사물의 본성을 포착한 것이 아닌 외면적인 인상과 같은 것으로 우리 군(軍)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군(軍)에 대한 이미지(정수영, 1994)와 통일에 대비한 군사역량 강화(문성묵, 2015) 등이 대표적이다.

강한 국방력은 첨단 무기와 병력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 불안정한 안보상황에서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은 예비전력뿐이며 이미 예비전력은 필수전력이 되었다. 따라서 군(軍)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1) 군(軍)에 대한 느낌·가치

오늘날의 군(軍) 조직은 사회·안보 환경의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軍) 조직은 국가를 튼튼히 방어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첨단 과학 기술군으로 변모하고 있다. 군(軍)은 전쟁을 주 업무로 하는 집단으로 사회의 그 어떤 조직과도 구별되는 집단이다. 다른 조직과 달리 계급과 직책을 우선시하는 권위적이면서 위계적인 전투집단이다. 즉, 군(軍)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행동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군기가 중요하며 그에 따른 직책과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이 필연적 조직이다.

군(軍)에 대한 느낌·가치는 군(軍)의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와 관련하여 서정근(2001)은 국내에 군과 관련된 보도 성향에 관

한 연구를 통해 다소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언급하면서 군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주장하였다. 군도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 활동이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 김현배(2009)는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가 미흡하며 언론과 변화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국(2021)은 군(軍) 부패요인은 군(軍)의 신뢰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개혁하고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상시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의 주장을 살펴볼 때 군(軍)에 대한 느낌·가치 및 이미지는 언론 등의 영향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예비전력 중요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 통일인식

한반도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단기적으로는 분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마련할 수 있다. 통일인식은 북한 정권을 포함한 대북인식, 남북관계 인식, 남·북통일 정책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나타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이재현·김옥, 2018). 이러한 통일인식은 우리 정권의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의 위협과 도발 등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에 연구자의 연구 시점에 따라서 통일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최근 KBS에서 조사된 2022년 국민 통일 의식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는 남·북한 통일에 관해 관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부담이 없다는 조건하에 통일에 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조사결과에서는 남북한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했다. 김병조(2015)는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인

식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낮은데 이유는 ‘국가이익보다 개인 이익이 적다’라고 조사되었다. 박균열·송도선(2012)의 연구 결과도 일반 국민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며 젊은 층으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구섭(2011)은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가급적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적었으며 세대가 변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약화하였다고 조사되었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지만, 개인이 지급해야 할 비용이 많으면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일인식에 있어서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이익과 연계하여 개인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논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군(軍)의 인식과 예비전력과의 관계

군(軍)과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논할 때 이를 분리하여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예비전력은 군(軍)이라는 특수 집단의 하위개념으로 예비전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군(軍)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청희(2003)는 군에 대한 긍정적 영향, 즉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군의 능력, 군의 성실성, 군의 사회기여, 효율성, 개방성, 일관성으로 규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사회기여, 안보 능력, 일관성, 성실성, 개방성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이중 사회 기여가 다른 요인과 비교해 높게 평가되었다. 전경국(2020)은 군에 대한 신뢰 결정요인으로 군사 능력, 사회기여, 성실성, 조직문화 특성으로 인식하였고 조사결과는 사회기여, 군사 능력, 성실성 순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송재익(2018)은 한국군의 신뢰 회복 방안으로 건전한 민군

관계 회복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군의 전문성, 책임성, 단체성을 바탕으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군(軍)에 대한 인식은 사회 기여와 안보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軍)에 대한 인식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과 개인의 특성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군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주고받는 여러 가지 정보를 조직화하고 해석을 통해 자신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군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이런 결과가 군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게 된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방력에서 예비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군(軍)뿐만 아니라 통일인식도 예비전력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게 되었다.

가설 1. 한국군에 대한 긍정적 느낌·가치는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1. 한국군에 대한 신뢰는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2. 한국군의 청렴성은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3. 한국군의 개방성은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 1-4. 한국군의 혁신은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통일인식은 예비전력 중요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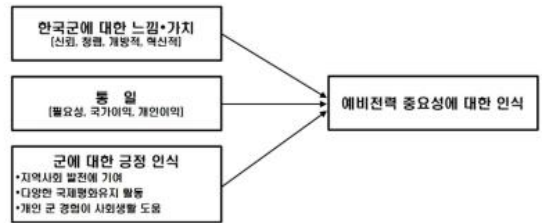
- 2-1. 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2. 통일이 국가이익이라는 생각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 2-3. 통일이 개인이익이라는 생각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군(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예비전력

중요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1. 지역발전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2. 사회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3. 군(軍)이 평화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시된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2022, 국방대학교)의 Raw Data를 활용하였으며, 창의적인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충분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연역적으로 변수를 도출한 이후에 관련된 2차 자료 data를 사용했다. 국방대학교의 조사보고서에서 분석되지 않은 변수 간의 관계를 주목하여, 조사 문항을 재구성하고 요인 분석하여 사용하였고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별 등의 변인을 통제한 후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대상

만 18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남녀 1,200명을 전국적으로 면접 조사하였다.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추출 방법을 사용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범위내에서 ±2.76% 분포이다.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구조화된 조사표(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구분		사례수	%
성별	남성	720	60.0
	여성	480	40.0
연령별	20대 이하	227	18.9
	30대	193	16.1
	40대	247	20.6
	50대	254	21.2
	60대 이상	279	23.3
지역별	서울	225	18.8
	경기/인천	386	32.2
	부산/울산/경남	179	14.9
	대구/경북	121	10.1
	광주/전라	114	9.5
	대전/충청/세종	127	10.6
지역 크기	강원/제주	48	4.0
	대도시	526	43.8
	중소도시	629	52.4
	읍·면	45	3.8

구분		사례수	%
직업별	농업/어업/임업	45	3.8
	자영업	165	13.8
	판매/서비스	236	19.7
	기능/숙련공	104	8.7
	일반 노무직	50	4.2
	사무/기술직	304	25.3
	경영/관리직	12	1.0
	전문/자유직	12	1.0
	전업주부	176	14.7
	학생	47	3.9
학력별	무직/휴직/은퇴	40	3.3
	기나	9	0.8
	중졸이하	55	4.6
	고등학교	458	38.2
	전문대	269	22.4
생활 수준별	4년제 대학교	410	34.2
	대학원 이상	8	0.7
	상	62	5.2
	중	565	47.1
	하	573	47.8

2. 측정 도구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2022, 국방대학교)에서 조사된 데이터 중에서 본 논문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한국군 느낌·가치, 통일, 군 긍정 인식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발췌하여 활용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추출 방법으로는 주성분 분석에, 베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였다. KMO 측도는 .743로 나타나 엄격한 기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유의확률이 .001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누적 분산이 61.376으로 요인이 뚜렷하게 분리되는바 요인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회전된 요인행렬

구분		성분				신뢰도
		1	2	3	4	
한국군 느낌· 가치	혁신적	0.841	0.018	-0.022	0.108	.771
	개방적	0.823	-0.014	0.003	0.134	
	청렴	0.758	0.088	0.086	-0.224	
	신뢰	0.587	0.027	0.423	-0.394	
통일 인식	개인 이익	0.030	0.827	-0.023	0.003	.695
	국가이익	0.001	0.802	0.210	-0.059	
	필요성	0.053	0.735	0.102	0.210	
군 긍정 인식	복무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0.046	0.117	0.818	0.078	.706
	지역사회 발전효과	0.047	0.102	0.779	0.179	
	국제평화유지 활동	0.022	0.153	0.434	0.772	

내적 일치도는 한국군에 대한 느낌·가치가 .771, 군 긍정인식이 .706으로 양호한 수준이었고, 통일인식이 .695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한국군에 대한 인식 예문으로는 “귀하는 평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귀하는 평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청렴하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귀

하는 평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귀하는 평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혁신적이라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귀하는 평소 국방부 및 한국군에 대해 친근하다는 느낌이나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이다. 통일인식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한국 국가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한반도 통일이 자신 개인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이고, 군 긍정 인식 예문으로는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우리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경제재건, 의료 지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며, 안보의식 예문으로는 “최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국민의 안보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이다.

추가로, 각 요인들 간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최대우도 방법의 사각 오블리민 회전으로요인 분석해 보았다. 적합도 검정결과 카이제곱은 66.195(자유도 18, $p < 0.001$)이고, RMSEA값은 아래 계산식으로 계산한 결과 0.04로서 < 0.05 의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모집단 내에 3개의 요인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RMSEA = \frac{\sqrt{(X^2 - df)}}{\sqrt{df(N-1)}}$$

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의 수집은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시행한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6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하고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는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후에 성별, 신분, 직책, 나이 등을 통제하여 선행변인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형과 통제변수와 영향 변인을 모두 포함한 2단계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 및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확인했다. Durbin-Watson 통계량을 확인하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지 평가하였고,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문제도 확인하였다. 이후에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과 변인의 표준화 계수 확인을 통하여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의 특징 파악을 위해 아래의 <표 3>과 같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평균 3.09(SD=0.98)로서 리커트 척도 기준으로 보통이다(3)와 중요하지 않다(4)의 사이값으로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보통 이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에 대한 느낌과 가치는 평균 2.58(신뢰)부터 3.00(개방적, 혁신적)까지의 분포로 있다(2)와 보통이다(3)의 사이값이다. 통일에 대해서는 국가이익(2.40)부터 개인이익(2.71)의 분포를 보였으며 있다(2)와 보통이다(3)의 사이값이다. 군에 대한 긍정인식의 평균은 지역사회 발전 기여(2.48)부터 개인의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2.50)으로 있다(2)와 보통이다(3)의 사이값이다.

<표 3> 기술통계분석(n = 1200)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예비전력 중요성		1	5	2.22	0.743
한국군 느낌· 가치	신뢰	1	5	2.58	0.766
	칭립	1	5	2.96	0.904
	개방적	1	5	3.00	0.891
	혁신적	1	5	3.00	0.838
통일	필요성	1	5	2.70	0.973
	국가이익	1	4	2.40	0.711
	개인 이익	1	4	2.71	0.707
군에 대한 긍정 인식	지역사회 발전 기여	1	5	2.48	0.686
	다양한 국제 평화유지 활동	1	5	2.48	0.726
	군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	1	5	2.50	0.797

그리고 주요 변수에 대해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표 4>와 같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대상 변수는 총 11개로 예비전력의 중요성, 한국군에 대한 느낌과 가치(5), 통일인식(3), 군에 대한 긍정 인식(3)이며 <표 4>와 같다.

<표 4>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n = 1200)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예비전력 중요	1										
2.군 신뢰	.129**	1									
3.군 칭립	.008	.444**	1								
4.군 개방	.081**	.368**	.475**	1							
5.군 혁신	.066*	.403**	.493**	.558**	1						
6.통일 필요	.135**	.084**	.056	.047	.037	1					
7.통일 국익	.109**	.105**	.075**	.016	.035	.445**	1				
8.통일 사익	.029	-.001	.083**	.024	.056	.413**	.500**	1			
9.긍정지역발전	.337**	.176**	.087**	.096**	.072*	.185**	.199**	.123**	1		
10.긍정사회경험	.230**	.214**	.078**	.109**	.079**	.185**	.227**	.118**	.470**	1	
11.긍정평화유지	.297**	.056	-.030	.015	.029	.244**	.213**	.120**	.368**	.356**	1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군에 대한 긍정인식(지역발전, 사회경험)은 대부분의 변수와 상관관계를 보였고(p<0.01), 예비전력 중요성은 한국군(신뢰, 개방, 혁신), 통일(필요성, 국익), 긍정 인식(지역발전, 사회경험, 평화유지) 등 8가지 변수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2. 한국군에 대한 느낌·가치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군에 대한 느낌·가치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통제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399, p>.05), 통제변수 및 영향 변인을 모두 포함한 2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3.176,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0.2%(수정된 R제곱은 -0.3%)로 나타났고(R²=.002, adjR²=-.003), 2단계에서 2.6%(수정된 R제곱은 1.8%)로 나타났다(R²=.026, adjR²=.018).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31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최종학력, 혼인, 가계소득, 계층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도 통제변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선행변수 중에서 한국군에 대한 신뢰(β=.140, p<.001)와 칭립(β=-.088, p<.05)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1-1(한국군에 대한 신뢰는,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과, 1-2(한국군의 칭립도는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단, 한국군의 신뢰(β=.140, p<.001)에 대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칭립(β=-.088, p<.05) 관련해서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군이 칭립하다고 느낄수록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한국군 관련 군납 비리, 병역기

피 등 현역장병의 부정적인 이슈가 없어지면 현역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및 한국군의 전투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예비전력이

<표 5> 한국군 느낌/가치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Step 1				Step 2				
		B	β	t	p	B	β	t	p	
예비 전력 중요성 인식	(상수)	2.544		10.565***	0.000	2.228		8.864***	0.000	
	성별	-0.003	-0.002	-0.070	0.944	-0.005	-0.003	-0.109	0.914	
	나이	-0.001	-0.017	-0.387	0.699	-0.001	-0.021	-0.479	0.632	
	최종학력	-0.035	-0.045	-1.197	0.232	-0.042	-0.055	-1.472	0.141	
	혼인	-0.031	-0.022	-0.559	0.577	-0.029	-0.020	-0.522	0.602	
	가계소득	-0.006	-0.014	-0.432	0.666	-0.008	-0.018	-0.522	0.602	
	가정계층	-0.027	-0.024	-0.746	0.456	-0.026	-0.024	-0.729	0.466	
	한국군 느낌/ 가치	신뢰					0.136	0.140	4.227***	0.000
		칭림					-0.073	-0.088	-2.440*	0.015
		개방					0.053	0.063	1.744	0.081
혁신						0.018	0.021	0.556	0.578	
F		.399(>.05)				7.328(p<.001)				
R ²		0.002				0.026				
adjR ²		-0.003				0.018				

* : p < .05, ** : p < .01, *** : p < .001

3.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이익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이익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399, p>.05), 통제변수 및 영향 변인을 모두 포함한 2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9.97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0.2%(수정된 R제곱은 -0.3%)로 나타났고(R²=.002, adjR²=-.003), 2단계에서 2.6%(수정된 R제곱은 1.9%)로 나타났다(R²=.026, adjR²=.019).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36으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최종학력, 혼인, 가계소득, 계층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도 통제변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선행변수 중에서 통일에 대한 필요성($\beta=.126$, p<.001)와 국가이익($\beta=.086$, p<.05)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2-1(통일에 대한 필요성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2-2(통일의 국가이익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통일에 대한 필요성($\beta=.126$, p<.001)이 높고 통일

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beta=-.086, p<.05$) 예비전력의 필요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통일에 대한 필

요성, 국가의 이익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6>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Step 1				Step 2			
		B	β	t	p	B	β	t	p
예비 전력 중요성 인식	(상수)	2.544		10.565***	0.000	2.228		8.851***	0.000
	성 별	-0.003	-0.002	-0.070	0.944	0.001	0.001	0.019	0.985
	나 이	-0.001	-0.017	-0.387	0.699	0.000	0.006	0.127	0.899
	최종학력	-0.035	-0.045	-1.197	0.232	-0.028	-0.036	-0.960	0.337
	혼 인	-0.031	-0.022	-0.559	0.577	-0.041	-0.029	-0.740	0.459
	가계소득	-0.006	-0.014	-0.432	0.666	-0.009	-0.019	-0.585	0.559
	가정계층	-0.027	-0.024	-0.746	0.456	-0.036	-0.033	-1.005	0.315
	통일 의식	필요성					0.096	0.126	3.801***
	국가이익					0.090	0.086	2.476*	0.013
	개인이익					-0.067	-0.064	-1.865	0.062
F		.399(>.05)				9.979(p<.001)			
R ²		0.002				0.026			
adjR ²		-0.003				0.019			

* : p < .05, ** : p < .01, *** : p < .001

4. 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군이 지역발전 및 사회생활, 평화유지 등 긍정적인 생각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통제변수만 포함된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F=.399, p>.05$), 통제변수 및 영향 변인을 모두 포함한 2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9.97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 단계에서 0.2%(수정된 R제곱은 -0.3%)로 나타났고 ($R^2=.002, adjR^2=-.003$), 2단계에서 16.3%(수정된 R 제곱은 15.6%)로 나타났다($R^2=.163, adjR^2=.156$). 한편 Durbin-Watson 통계량은 1.888으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는 없다고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도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나이, 최종학력, 혼인, 가계소득, 계층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2단계에서도 통제변수는 유의하지 않았고, 선행변수 중에서 지역사회 도움($\beta=.215, p<.001$)와 사회생활($\beta=.124, p<.001$), 평화유지($\beta=.176, p<.001$) 모두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 3-1(지역사회 긍정인식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와 3-3(평화유지 긍정인식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는 채택되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군이 지역사회 발전

에 효과가 있고($\beta=.215, p<.001$), 군 복무 경험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며($\beta=.124, p<.001$), 군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 활동($\beta=.176, p<.001$)이 예비전력의 필요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표준화 계수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 평화유지, 사회생활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7> 군에 대한 긍정인식이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Step 1				Step 2				
		B	β	t	p	B	β	t	p	
예비 전력 중요성 인식	(상수)	2.544		10.565***	0.000	1.265		5.339***	0.000	
	성 별	-0.003	-0.002	-0.070	0.944	-0.004	-0.003	-0.110	0.913	
	나 이	-0.001	-0.017	-0.387	0.699	0.000	-0.001	-0.016	0.987	
	최종학력	-0.035	-0.045	-1.197	0.232	-0.020	-0.025	-0.740	0.460	
	혼 인	-0.031	-0.022	-0.559	0.577	-0.038	-0.027	-0.755	0.450	
	가계소득	-0.006	-0.014	-0.432	0.666	-0.013	-0.028	-0.903	0.366	
	가정계층	-0.027	-0.024	-0.746	0.456	-0.048	-0.044	-1.461	0.144	
	긍정 인식	지역사회					0.233	0.215	6.898***	0.000
		사회생활					0.116	0.124	4.018***	0.000
		평화유지					0.180	0.176	5.969***	0.000
F		.399(>.05)				25.671(p<.001)				
R ²		0.002				0.163				
adjR ²		-0.003				0.156				

* : p < .05, ** : p < .01, *** : p < .001

IV. 결론

냉전 종식 후 안보의 개념은 자연재해, 재난, 전염병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각국에 전통적 안보,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다(양승봉, 2023). 이런 가운데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는 상비전력의 대체전력인 예비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예비전력 정예화는 시대적 소명이 되고 있다.

그동안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연구는 없었다. 예비전력을 군(軍)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군(軍) 수준에서의 인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군(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대내·외 안정적인 안보 상황,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수록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따라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분석하였고, 단순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는 않고 학문적인 의의를 갖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신뢰성 있고 타당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인분석을 하여 재구성된 측정도구를 검증하였고,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후에 변수들의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단순 상관관계 이상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은 한국군의 느낌·가치에 대한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신뢰와 청렴이 예비전력 중요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한 해병대 사망사고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수사단장 사건, 공군 이예림 중사 사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병역 비리 사건 등 군(軍) 관련 부정적인 보도가 많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으며, 군이 청렴하다는 느낌을 가질수록 현역장병의 전투력이 상승되고 현역을 보완하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군(軍)의 부정적인 보도가 많을수록 예비전력의 필요성을 느낀다고도 볼 수 있어, 일반 국민은 예비전력을 상비전력의 보조적인 역할 또는 상비전력과 대등한 관계이자 보완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통일인식과 관련하여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이익이 예비전력 중요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통일을 위해서 강한 군(軍)이 필요하며 그 속에 예비전력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일반 국민은 예비전력을 군사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핵심전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반 국민은 예비전력이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군의 긍정 인식(지역사회 발전기여, 다양한 국제평화 유지 활동에 기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미치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였다.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예비전력은 군(軍)이라는 특수 집단의 하위개념이며 대표성을 가진 군(軍)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예비전력을 군(軍)과 동일시하며 군(軍)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예비전력의 중요성 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예비전력을 필수전력으로 인식하는 것

로 볼 수 있다.

넷째,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군에 대한 느낌·가치는 신뢰($\beta=.140$, $p<.001$)와 청렴($\beta=-.088$, $p<.05$), 통일인식은 통일의 필요성($\beta=.126$, $p<.001$)와 국가이익($\beta=.086$, $p<.05$), 군에 대한 긍정인식은 지역사회 도움($\beta=.215$, $p<.001$)와 사회생활($\beta=.124$, $p<.001$), 평화유지($\beta=.176$, $p<.001$)가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영향을 주었고, 군의 지역사회 도움, 평화유지, 한국군에 대한 신뢰, 통일의 필요성 의식, 국가이익 순이었다. 예비전력 중요성을 일반 국민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히 군(軍)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군(軍)에 대한 느낌·가치, 통일 및 군(軍)에 대한 인식과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과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해 보았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은 군(軍)의 연장선상에서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군(軍) 관련 언론 이슈, 개인 이익 등에 따라 인식하는 예비전력 중요성의 인식도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외부요인과 관계없이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그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 현재 국방부는 예비전력 정예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과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못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예비전력 중요성에 대한 홍보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이를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를 달성하는 노력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전국의 성인 1,200명의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하였다.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서 통제변수로서 영향이 없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된 표본에 대한 사례수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의 차이

가 있다. 또한 예비전력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병역 이행자와 미이행자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전문가, 군인) 등을 포함한 심층적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용구 (2023). 메타버스(Metaverse) 기반의 예비군 훈련 발전 방향 연구. 미래사회, 14(1), 20-34.
- 국방대학교 (2022). 2022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일반국민, 논산: 국방대학교.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9073호 (22. 12. 13.)
- 김청희 (2003). 군(軍)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현배 (2009).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체계 발전방안: 디지털 미디어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박군열, 송도순 (2014). 대학생과 성인의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 시사점. 통일전략, 14(2), 135-159.
- 박상중, 윤진영 (2021). 예비전력 적정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방안: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신규예산 소요를 중심으로. 전략연구, 28(3), 347-387.
- 박종길 (2018). 한국군 예비전력 건설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제약 요인 및 대안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문성목 (2015). 남북통일과 우리 군의 역할. 정신전략연구, 46, 235-265.
- 서정근 (2001). 국내신문에 반영된 군 이미지와 보도 성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 송재익 (2018). 건전한 민군관계 속의 국민으로부터 한국군의 신뢰 회복 방안. 군사논단, 94, 195-223.
- 양승봉 (2021). 미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지역 예비군 최적화 운영에 관한 연구. 선진국방연구, 4(3), 20-51.
- 양승봉 (2023).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31(1), 204-221.
- 이원희 (2015). 예비전력의 이론과 실제, 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웅, 정민섭, 박상혁 (2021). 미래 한국군 예비전력 정책발전 방안 연구.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5(1), 134-140.
- 이재현, 김욱 (2020). 대학생 통일인식과 대학교 통일교육의 함의. 통일연구, 24(1), 77-105.
- 이태림 (2022). 한해를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윤지원 (2021). 상비군 감축 시대 선진화된 예비전력 운용과 구축 방안. 한국세계지역학회, 39(3), 297-322.
- 전경국 (2020). 대학생이 지각하는 군 신뢰가 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20(4), 13-25.
- 전경국 (2021). 군(軍) 부패요인이 군(軍) 신뢰를 매개로 국가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부패학회보, 26(2), 147-164.
- 정수영 (1994). 신문에 보도된 군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학교 대학원.
- 정성희, 이상현 (2022).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국방연구, 65(4), 147-169.
- 정일성 (2022). 총체전력으로서 예비전력 강화 방안 연구: 동원사단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65(1), 175-200.
- 정진섭 (2019). 통일 이후 한국의 예비전력 운영에 관한 연구: 적정 예비군 규모 판단과 제도 정립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정진섭 (2023). 예비군제도 발전 경과 및 미래 혁

신 방향. 2023년 제2차 RINSA 국가안보 오찬포
럼 발표집

합참 (202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참.

KBS (2022). 2022년 국민 통일 의식 조사.(요약보
고서)

투고일자: 2023. 8. 10.

심사일자: 2023. 10. 6.

게재확정일자: 2023. 10. 6.

A Study on the Effect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for the General Public

Seungbong Yang

Soonwon Choi

Korea National Defence University Chodang University

In light of the ongoing threat from North Korea and a shrinking population leading to decreased military resourc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lite reserve forces.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reserve forces and their impact on public perception,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Korean military, national unity, and the public's view of the military. The study's findings are as follows: Amidst the various sentiments and values associated with the Korean military, trust and integrit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perceived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for the general public. Notably, integrity has a negative effect, indicating that heightened negative reports about the military lead to an increased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for reserve forces. Within the context of unification awareness, the perceived necessity and national interest of unificatio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This implies that reserve forces are considered a fundamental component of national strength. Among the positive perceptions of the military, including contributions to community development, peacekeeping efforts, and military experience, all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reserve forces in enhancing societal well-being. The study concludes by presenting implications and acknowledging the limitations of these research results. Additionally, it outline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Reserve forces, General public, Feelings and values of the Korean military, Military perception, Unification recognition